



서로 돕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칼럼

인간 사회는 빌려주는 임대인(賃貸人)과 빌려 쓰는 임차인(賃借人)의 관계에서 살고 있다. 태초에 만물은 하늘이 창조하였고 인간이 개척하고 개발해 자기 소유로 만들었으며 인간은 먼저 개척 개발한 자로부터 임차하여 쓰고 있다. 임대와 임차의 관계는 크게는 하늘로부터 국가가 임차했고 국가로부터 개인이 임차해 사는 동안 자기 소유로 쓰면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가의 토지는 국가 소유며 개인은 지상 건물만 개인소유로 허용하고 있다.

인간은 빈손으로 태어나 열심히 일하여 잠시 사는 동안 자기 소유로 만들어 임대하고 살지만, 결국 죽을 때는 모든 것을 반납하고 빈손으로 간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부질없는 헛된 욕심은 버리고 삶에 필요한 것은 먼저 개척하여 가진 자가 된 사람으로부터 임차하여 쓰면서 나도 남이 잘 살도록 임대하면서 살아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은혜를 베풀고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의 보답으로 임대료를 주는 것이다. 시중에 있는 수많은 부동산이나 상점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임대인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임차인이 잘 사용하여 성공하게 해야 하며 임차인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의 보답으로 임대료를 주어야 한다. 주공에서 국책사업으로 건축해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저렴한 임대료에 살게 하는 국가에 감사하고 애국으로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성경 마가복음 12장 1-9절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예수님이 비유해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포도밭을 잘 만들어 포도가 생산되면 많은 이익을 보도록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와 포도밭을 지키는 전방대를 만들고 포도주 제작기까지 만들어 임대했다. 몇 년이 지나 포도밭에서 생산된 포도를 울릴 무렵 종을 보냈는데 임차한 농민은 종을 구타하여 보냈고, 다른 종을 보냈으며, 그다음에는 농장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농민은 농장주인의 아들은 죽이면 농장이 자기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농장주인의 아들을 죽여 과수원 밖에 버렸다. 선량한 임대인의 은혜를 배척하고 욕심에

눈이 어두운 농민은 벌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 임대인인 농장주인도 잘살고, 임차인인 농민도 잘살려면, 농민이 은혜에 감사하며 임대료를 주었다면 농장주인은 더욱 포도밭에 투자를 늘려 농민이 잘살게 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공장 주인인 주주와 공장에서 일하며 노임을 받는 노사 관계가 있는데 해마다 노사 분규는 봉급 인상으로 막을 내리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산하게 된다. 회사가 사업이 잘 안되어 부도 직전인데 노사 분규는 하늘님께서 용서치 않으므로 함께 자멸하게 한다.

회사의 경영주는 창의력을 발휘해 회사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하며 회사원들이 우리 회사라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노동 복지 여건 조성을 잘해 주어야 한다. 회사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자필로 써서 제출하는데 취업하여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할 내용을 소상히 써서 처음부터 신입받아야 하며, 자기소개서는 회사에 보관되어 승진의 자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욕구 충족을 위해 할 일의 목적(目的)과 도달해야 할 목표(目標)를 정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 학교에 취학하여 공부하며,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선행연구를 하며 그 일에 필요한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고 발명특허 기계류를 임차하여 쓴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수여건은 그에 따른 시설과 물건을 임차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개발된 것을 최대한 임차해서 활용하면서 자기가 할 목적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선행자인 임대인은 후발자인 사업자가 임차하여 성공하도록 최대한 경험과 은혜를 베풀고, 임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감사하며 임대료를 지불해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

국가사회가 발전하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선배와 후배의 인간관계가 은혜 베풀기와 감사의 보답 고리로 연결되어야 하며, 국가는 선량하고 양심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세금 혜택을 주어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한다. 서로 돕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국가사회를 발전하게 한다.

“겨울철 축사 화재,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최고”

기고

이정호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겨울철이 지나가는 시기임에도 우리 전남 지역 축사에서 많은 재산피해가 동반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지난해 11월에는 곡성군 오산면 소재 돈사와 영암군 덕진면 양계장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자돈 2,500두, 닭 80천 마리가 폐사하는 화재가 있었고, 올 2월에도 영암군 시종면 소재 돈사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자돈 2,200두가 소실되는 피해가 있었다.

화재가 빈발하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축사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 또한 큰 이유는 축사가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 패널 건축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축사 내부에 쌓아 둔 다량의 가연물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화염과 연기로 인해 다수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안전 측면에서 축사는 대부분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차량 도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진입로 또한 협소하여 초기진화가 어렵고, 주변 소방용수가 부족하는 등 소방 활동상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축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축사 관리자가 화재로부터 축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사 내부와 관계인이 거주하는 관리사 등 곳곳에 소화기를 배치하여 화재 초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대부분 축사 화재는 전기에서 기인 되는데 전기시설의 재정비가 되기 위해서는 한전, 시·군의 도움이 필요하다.

축사 내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농가가 필요한 전력 소비량을 확인하고 부족 시 전력공사에 신고하여 반드시 승압 공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축사 내·외부 전선 피복 상태, 안전개폐기 점검을 통해 이상 있으면 즉시 교체하는 등 전기안전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전기 용접 등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시에는 주변의 가연물질을 제거하고, 작업장에 꼭 소화기를 배치하고 작업해야 한다. 소화기는 평소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축사에서 잘 보이고 편리한 곳에 두고,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하여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고 호스릴 일체형 소화전 및 고압 분무기도 설치하여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로, 축사의 구조적인 부분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연성이 높은 재질인 부직포나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자제하고 유리섬유 패널 등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방화벽이나 방화문을 설치해 동 간의 별도 구획을 지정하거나 동간의 간격을 최소한 3m 이상 유지한다. 화재 발생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고, 분진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평소 충분한 환기도 시켜 주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시·군에서도 소방차 진입을 위한 소방통로를 확보하고 도로 정비를 해준다면 축사 화재 시 신속하게 현장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축사 화재 예방은 농장주와 축산 관계기관의 관심, 즉 자율적인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축사 화재가 나 아닌 다른 누구에게만 오는 재난이 아니고 충분히 예방한 가능한 인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인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ihonam@naver.com

봄철 해빙기 미리 대비하는 유비무환 자세를

기고

김덕형 무안경찰서 몽탄치안센터장 경감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왔다. 옛그제만 해도 한파 및 폭설로 추운 겨울을 보낸 것 같은데 벌써 눈이 비가 되어 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우수를 맞이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태동하는 봄이 우리들 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렇듯 온 대지에 봄의 기운이 퍼지면서 찬 기운이 점차 풀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시기도 이때가 아닌가 싶다. 특히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운날씨로 어느 해보다도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날씨가 점차 풀리면서 기온상승과 함께 빙판 얼었던 모든 것이 녹기 시작하면서 각종 공사장, 도로절개지, 축대, 옹벽 등 겨울 내내 결빙되었던 곳들이 지반이 약화되면서 붕괴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또한 날씨가 따뜻해지면 등산하는 사람도 부쩍 증가하는데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즘같은 시기에는 계곡이나 바위 등 절개지가 있는 도로를 지날때는 낙석사고에도 주의해 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빙기 안전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의 축대나 버팀목 등 지지시설에 대한 점검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봄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리 만만한 계절은 아니다. 아직은 겨울의 끝자락이라고는 하지만 봄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지금부터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지는 만큼 해빙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따사로운 봄을 맞이하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